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 內陸의 燈台. 生命을 키우는 大地의 젖가슴 한국사람에게만 멀고 험한 안타까움

申 汪

編輯者註: 申汪씨는 우리나라의 민속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오랜기자생활을 통해 귀중한 이 방면의 자료들을 많이 발표했다. 그는 한국언론연구원에서 과견하는 연수생 케이스로 최근까지 오랜기간동안 「국립나이로비 대학교」서 동부아프리카 역사와 민속을 연구했으며 방학때와 주말을 이용해서 시골을 여행하면서 여러종족들의 생활풍습과 종교, 신화, 별난 옛이야기등을 폭넓게 수집했다. 방대한 그의 아프리카 탐방의 기록은 현재 大邱每日신문에 특집으로 연재되고 있다. 특히 분단민족의 서러움과 아픔을 억누를수 없는 킬리만자로 등반실패담.

탄자니아여행의 높은 장벽이 야기를 담은글은 회원들의 아프리카 국립공원시찰에 좋은 참고가 될것이므로 필자에게 특칭. 특별기교를 받아 실게된 것이다.

킬리만자로 (Kilimanjaro. 해발 5천 8백 95m)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두번째로 높은 산은 케냐산 (Mount Kenya. 해발 5천 1백 99m)이다. 킬리만자로는 동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Tanzania) 북쪽에 있고, 케냐산은 케냐 중부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동부 아프리카 대지구대 (大地溝帶)위에 솟아 있는 이 두산은 꼭대기에 하얀 만년설을 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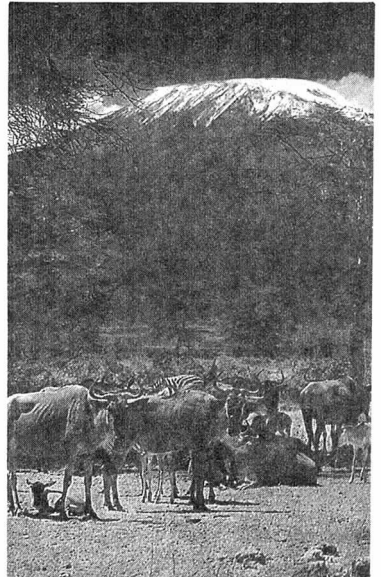
이 두산의 만년설로 해서 케냐와 탄

자니아는 「적도아래 있는 하얀 눈의 나라로」 불리어진다. 킬리만자로 바로 발밑으로는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선이 지나 간다. 킬리만자로의 소유권은 탄자니아가 갖고 있지만 두나라가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서로가 이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킬리만자로 등산을 목적으로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은 탄자니아로 가야 한다. 그러나 등산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 이라면 케냐에서도 킬리만자로의 업전하고, 웅장한 모습을 맘껏 관찰 할수 있다. 케냐의 남부 대평원 암보셀리국립공원 (Amboseli National Park)에 가면 이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살필수 있다.

킬리만자로는 큰평원에 아주 완만하게 솟아 있다. 자예스런 아버지 처럼 평원을 굽어 살피고 있다. 엘피니스트들이 남긴 기록에는 적도아래 하야 만년설이 돋보이는 신비스런산, 만년설과 광활한 황무지와 사바나 (Savannah)와 열대 정글을 함께 가진 산, 헤밍웨이의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들로 이산의 매력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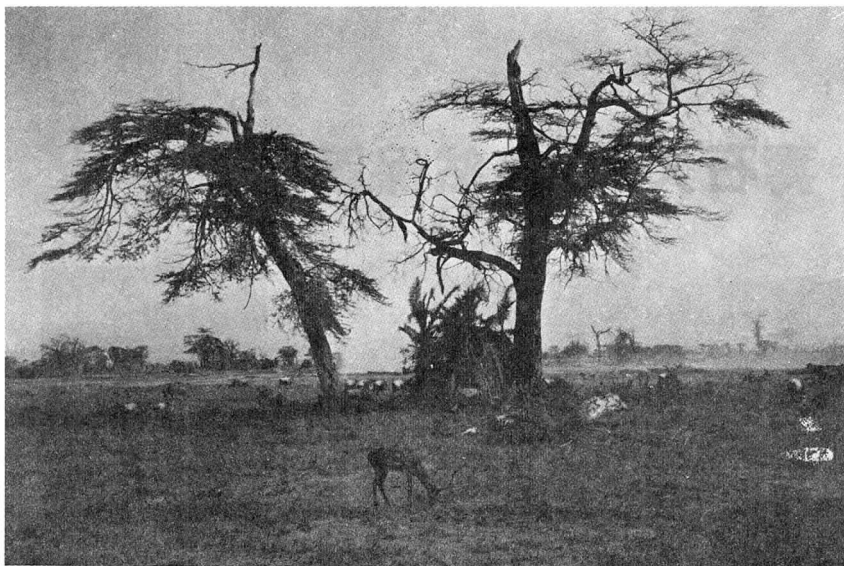
그러나 정작 이산을 아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오를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란테서 이산의 매력을 찾는다. 이산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처럼 킬리만자로에 오르는데는 고도의 훈련이나 기술이 필요 하지 않다. 고산등반에 필요한 몇가지 수칙만 지킨다면 누구나 오를수 있다는게 이산을 올라본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 들이다.



킬리만자로를 배경으로 암보셀리 평원에서 마사이 (Maasai) 족 소들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마사이족들은 소를 길러 쇠피와 우유를 먹고 산다.

「누구나 쉽게 오를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향해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사람에게만은 「한사코 못가는 산」이다. 내가 케냐에 있을 때였다. 서울에서 김남하·곽귀훈씨가 왔다. 두 사람은 중학교교장 이었으며 등산에도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두사람이 아프리카 까지 온 목적은 단 하나 였다. 킬리만자로에 오르는 것이었다. 나 역시 킬리만자로에 갈수 있



케냐의 암보셀리국립공원.
임팔라(앞 쪽)와 영양(뒷쪽)
들이 풀을 뜯고 있다.

〈약도〉



는 기회를 엿보고 있을때 였다. 서울에서 온 두교장과 서울에 있는 파라다이스 투자개발주식회사(회장. 전략원)가 경영하는 케냐 현지 업체인 사파리 파크 호텔(Safari Park Hotel)의 한기욱 사장과 나 네사람은 선뜻 뜻이 맞아 함께 킬리만자로에 오르기로 했다.

탄자니아는 한국과 국교가 없다. 북한과 가까운 사회주의 국가 탄자니아 입국 비자를 받기란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일행들은 케냐 주재 탄자니아 대사 친구이며 법학및 경제학 박사학위를 갖고, 케냐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인도 출신,술탄. A. 랄지(Sultan A. Lalji)를 통해 비자 교섭을 갖기로 했다.

술탄. A. 랄지는 한기욱 사장과도 친한 사이였다. 일행 네사람과 술탄. A. 랄지 등 다섯 사람은 케냐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 있는 탄자니아 대사관을 찾아 갔다. 대사관은 꽤나 큰 건물 3층에 있었다. 대사 집무실 바깥 대기실에서 10여분을 기다리고 있을때 여자 비서가 나와 일행을 안내 했다.

풍채 좋은 탄자니아 대사는 “안녕 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하며 일행들을 맞았다. 놀라운 표정을 짓는 일행들에게 그는 한국말을 잘 할수 있게 된 사연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외교관으로 북한에서 근무했으며 백두산·금강산을 비롯한 여러 곳을 여행 했었다고 말했다. 한기욱 사장이 자신의 고향이 북한이라고 하자 그는 북한 이야기도 몇

토막 해 주었다. 한국에서 들을수 없었던 제나라 이야기를 아프리카 사람으로부터 들을수 있었다.

탄자니아 대사는 비자를 받으러 왔다는 일행들의 방문목적을 들은뒤 “형식상 본국정부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행들은 정식으로 입국 비자를 받아 탄자니아로 여행하는 최초의 한국사람들이 된다는 기대를 남긴채 대사관을 떠났다. 일행들이 떠날때 대사는 사흘쯤 뒤에 한번 와 보라고 했다.

일행들은 킬리만자로를 등반 한뒤 유명한 선사유적지 올두바이 고즈(Olduvai Gorge)가 있는 세렌게티(Serengeti) 평원(Maasai 족이 살고 있음)과 수도 다 에스살람(Dar es salaam. 평화스런 항구)으로 여행 한다는 탄자니아여행 계획도 짰다. 사흘째 되는날 탄자니아 대사관을 방문했다. 직원은 좀더 기다려야 겠다는 대답이었다.

하루 뒤에 다시 갔으나 역시 기다리라는 대답이었다. 미련스레 기다릴것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음날 여권을 찾을수 밖에 없었다. 그때 마침 비자를 받아가던 일본 여학생이있었다. 고등학생으로 보였다. 그 여학생은 안타깝다는듯 쳐다보았다.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고, 쉽게 찾는 킬리만자로 가는 길도 한국사람에게 만은 멀고, 험했다. 남과 북의 두꺼운 장벽은 한국의 휴전

선에만 가로 놓인 것이 아니었다. 멀고 먼 대륙 아프리카까지 뻗어 있었다.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동부 아프리카 대평원에 솟아 있는 킬리만자로는 그의 머리에 있는 눈을 녹여 발밑에 있는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을 키우고 있다. 킬리만자로는 생명을 키우는 대지의 젓가슴이다.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옛부터 이산을 위대한 산(Mountain of great)으로 받들었고, 달(月)의 산으로도 불렀다. 광활한 벌판을 무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이 산이 내륙의 등대였다.

「Kilimanjaro」는 「산」을 뜻하는 「Kilima」와 「대상」(Caravan)을 뜻하는 「Njaro」가 결합된 이름이다. 내륙으로 장사길을 떠나는 현지 인들이나 인도양을 건너온 바깥 세계 사람들이 미지의 아프리카 내륙(內陸)으로 들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뜻으로 이해 될수 있다.



筆者略歷

영남대학교졸업. 케냐 국립나이로비 대학교서 동부 아프리카 역사와 민속 연구. 대구일보사, 영남일보사 기자. 현재 대구매일신문사 심의실 심의위원.